

경인일보

2015년 12월 14일 (월)
03A면 종합

올 마지막 DMZ 누리길 종주 200여명 6.5km코스 행진 참가

DMZ 관광 활성화와 걷기문화 확산을 위한 'DMZ 평화누리길 종주투어'의 올해 일정이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파주 임진각 일원에서 평화누리길 종주투어 피날레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평화누리길 12개 구간 종주자, 평화누리길 카페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평화의 종각에서 출발해 토끼굴과 임진강역을 거쳐 다시 평화의 종각으로 돌아오는 6.5km의 '평화누리길 8코스 반구정길'을 걸었다.

도의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 4개 시·군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191km, 12개 구간으로 구성된 트레킹 코스다. 지난 2010년 처음 시작한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지난 4월 연천군, 5월 파주시, 9월 고양시, 10월 김포시에서 개최됐으며 모두 4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5.0 X 14.3 cm

중부일보

2015년 12월 14일 (월)
03B면 종합



평화누리길 걸으며 '힐링' 경기도는 지난 12일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누리길 종주투어 피날레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4차례 열린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의 마무리 행사로, 평화누리길 12개 코스 종주자, 평화누리길 카페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경기도청

17.4 X 12.8 cm

경기도 '평화누리길 종주투어 피날레 행사' 성료

2015년 12월 14일 (월)

이영은 기자

평화누리길 종주투어 피날레 행사가 12일 파주 임진각 일원에서 평화누리길 12개 코스 종주자, 평화누리길 카페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총 4차례 실시했던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의 마무리를 맺는 자리로, 이날 참가자들은 평화의 종각에서 출발해 토끼굴과 임진강역을 거쳐 다시 평화의 종각으로 돌아오는 총 길이 6.5km의 순환코스인 '평화누리길 8코스 반구정길'을 걸었다.

이강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015년은 광복·분단 70주년을 맞는 해로, 올해 많은 분들이 연천서부터 김포까지 평화누리길에서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걸었다"며 "많은 분들이 평화누리길 위에서 뜻 깊은 송년행사를 보내길 강력히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 4개 시군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총 연장 191Km, 12개 구간으로 구성된 명품 트래킹 코스로,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은 물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어 이 길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극찬을 받아 오고 있다.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DMZ 일원 4개 시군을 잇는 최북단 트래킹 코스인 평화누리길을 걷는 것으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건강한 걷기 문화 확산과 DMZ 일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해온 행사다.

올해는 4월 연천군을 시작으로 5월에는 파주시, 9월에는 고양시, 10월에는 김포시에서 개최됐으며, 총 4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